

보시가 주는 생활의 여유와 지혜

10루피로 산 행복

달라이 라마의 방한은 상상되지 못했지만 티베트 불교에 대한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올해 초부터 출간된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를 다룬 책들만도 수십여 권이 이를 정도다. 최근 출간된 <10루피로 산 행복>(바다)도 그런 책이다.

기존의 티베트 관련 책들이 달라이 라마의 설법이나 강연, 일대기 위주였다면 이 책은, 티베트인들의 삶과 풍물, 그리고 자연을 우리의 시각에서 쓴 기행문이다. 글쓴이는 여행사 진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해선 씨. 그가 찾은 곳은 히말라야 산맥의 서남쪽 '작은 티베트'라 불리는 라다크로 여러 공과(사원)를 찾아가는 여정이 이 책의 기동이다. 들가루 만다라 만드는 법을 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으로 시작된 글쓰기의 라다크 여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바람이 다닌다'는 길' 편에서는 라다크 지역의 사원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풍물을, '슬픈 영혼의 호수' 편에서는 쿤룬산맥과 히말라야산맥으로 둘러싸인 광활한 티베트 고원 속의 삶을 경이로 소개한다. 낯선 이방인을 집으로 초대해 극진하게 대접하는 라마승, 빈민가에서 고단한 생활을 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나눌 줄 아는 티베트의 망명자 체링 등의 따뜻한 힘이 행간에 가득하다. 값 7천8백원.

통념 뛰어넘은 재가불교 강론

이기영 전집 제2권 '유마경 강의'

불교학 현대화의 선구자 이기영(1922~1996) 박사의 <유마경 강의 상·하>(한국 불교연구원)가 출간됐다. 이 박사가 지난 92년부터 96년까지 56회에 걸쳐 한국불교연구원에서 강연한 내용을 정리한 이 책은 '불연 이기영 전집' 25권이다.

이기영 박사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경전 가운데 하나인 <유마경(維摩經)>은 반야사상에 입각해 재가불교의 사상을 실현 초기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 <화엄경>, <법화경> 등과 함께 불교의 기본적인 교과서로도 꼽힌다. <유마경>은 인도 바이살리에 살고 있다는 상상의 유마(維摩詰) 거사의 친병(稱病)을 계기로 벌어지는 사건과 불교 사상에 대한 문답을 서술하고 있다. 명료한 문장과 풍부한 문학적 자유로움이 특징이다.

이기영 박사가 남긴 저술들은 관습적인 학문 틀과 통념을 뛰어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는 역사적이거나 훈고학적인 주석에 얽매이지 않고 사상의 본질적인 의미를 해석한다. 값 3천 1만3천원, 하권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라즈니쉬가 이웃에 전하는 가르침

'많은 일들이 그리고...'

인도의 성자 오쇼 라즈니쉬의 80년대 행적에 대한 소문들은 지금껏의 문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그 시기에 라즈니쉬는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신간 <많은 일들이 그리고 아무 일도 1·2>(황금꽃)는 바로 그 시기에 대한 '잃어버린 고리'가 되어 주는 책이다. 이 책은 라즈니쉬가 무고하게 미국 정부에 의해 투옥되었다가 추방된 후,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땅을 찾아 21개국 4만6천 마일에 걸친 세계 여행을 하면서 강의했던 내용들이다. 특히 이 책 속에는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녹아 있어 읽는 이를 강력하게 빨아들인다.

이 강의들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사용한 말 그대로



실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 강의들이 주는 느낌은 색다르다. 이 강의에서 그는 지혜와 빛의 전이라는 관점을 소개하고 강조한다. 그는 인간 의식의 일곱 가지 층들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고, 어떻게 제자가 그 층들을 만나고 탐구하고 드러낼 수 있는지를 말한다. 특히 이 책은 인류의 미래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상세하게 강의한 것으로 라즈니쉬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도 쉽게 그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값 3천 1만3천5백원. 김중근 기자

인도서 체험한 삶과 불교

법륜스님 지음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 책은 법륜 스님이 부처의 땅, 인도를 순례하면서 느낀 체험과 동행자들에게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유적들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적은 인도 순례기이자 안내서다.

부처님의 성지를 찾는 본래의 목적은 허물어진 탐이나 건물을 보려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살아 있는 부처님의 고뇌와 체취를 생생하게 느끼고자 함이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 비로소 참다운 성지 순례가 된다. 법륜 스님의 성지순례도



고 최초 설법지 바라나시의 사르나트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간다. 이어 수자타의 공양터와 우루벨라 마을에서 가섭 상형제를 교화하던 모습을 그려 보고, 마가다국의 수도였던 라즈길을 거쳐 파트나와 바이살리, 그리고 부처님 열반의 땅, 쿠시나가라로 향한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삶을 둘러본 스님은 한 인간으로서의 부처님을 이해하기 위해 내팔 국경을 넘어 톰비니를 찾는다. 이곳에서 부처님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출가의 모습을 되새겨 본다. 코살라국의 수도였던 슈라바스티의 기원정사와 천도의 어머니와 마야부인께 설법을 하고 내려왔다는 상카시아를 마지막으로 순례를 마친다.

이와 함께 이 책은 성지에서 부처님이 설한 내용을 가려 뽑은 '경전 구절과 성지의 실측도면, 그리고 인도의 사상과 역사를 수록하고 있어, 안방에서도 인도의 불교성지와 교감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법륜 스님은 "인도에서 생활하다 보면 경계마다 부딪쳐 짜증나는 일이 수 없이 많습니다. 그 때마다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를 잘 살필 수 있다면 수행의 여행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바깥 경계만 탓한다면 힘만 들고 후회되는 여행이 됩니다"고 말한다. 값 1만3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hia.com)

석가모니 수행지 두루 답사 '인도순례 10년' 한권에 담다

구석구석 부처님 체취 물씬

이와 다르지 않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살았던 시대상황과 그 당시 사람들의 고뇌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법륜 스님은 보는 자가 아닌 부처님과 똑같이 실천하는 주체가 된다. 그래서 스님의 인도순례는 '고행'이라 할 정도로 힘겹게 진행되었다. 이를테면 '왜 부처님이 출가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라는 의문이 아니라, 직접 부처님의 입장을 돌아보게 해준다. 스님은 부처님의 출가 이유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켈카타라고 말한다.

"집을 떠났다는 단순한 의미로서의 출가가 아니라, 정말 인생에 대해서 고뇌하지 않으면 안되고 새로운 길을 열어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발돋움, 그런 의미의 출가입니다. 켈카타의 속소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그 앞에 죽어 가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이 모습은 출가가 왜 사문유관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사문유관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이 책도 켈카타부터 시작된다. 그리



가까이서 본 미국인 수행자의 마음공부

세동스님 산문집 '그들은 마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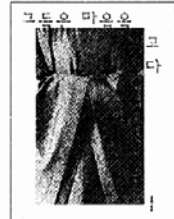
세동 스님의 산문집 <그들은 마음을 보고 있었다>(문학동네)의 책장 속에는 눈 푸른 불자들의 수행생활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 '미국불교를 읽는 창' 역할을 한다.

불교수도원과 선 센터,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 불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불자들의 열기가 뜨겁게 느껴진다. 글쓴이는 동국대 불교학과와 일본 고마자와 대학에서 공부하는 등 학습의 길을 걷고 있는 비구니 세동 스님. 스님은 불교여성학 연구를 위해 지난 94

년부터 4년 간 미국 UC 버클리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이 책은 그때 만난 눈 푸른 불자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묶은 것이다. 월남 전 참전용사, 화학자, 동성애자 등이 바로 그들.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미국에서 불자가 된 이들의 사연은 가슴 뭉클하기도 하고, 배꼽을 잠을 만들 우습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그 이면에 숨겨진 그들의 '부처님 사랑'이다.

그래도 이 산문집이 우리의 독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은 불교에 대한 글쓰기의 비평적 시각이다. 그것은 주로 불교 여성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독립된 주제로서의 여성적



삶을 불교의 근본 사상으로 응호한다. 이에 대한 스님의 글은 학자이기보다는 여성운동가라고 할 정도로 날카롭다. 그렇다고 '아니다'는 식의 비판에만 일관하는 것은 아니다. 이방의 불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찾고 만났는지를 주의 깊게 살핀다면 '지금 이곳'의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구실도 해 줄 책이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새로나온 책

▲요가수트라(정태학 지음, 동문선)= 인도의 육과철학 가운데 하나인 요가학파의 사상과 수행법을 일목요연하게 적고 있다. 이 책은 먼저 요가학파의 경전인 <요가수트라(요가경)>를 우리말로 옮겨 해설하고 있다. 이어 '요가란 무엇인가'를 비롯 요가 역사, 그리고 그 수행법을 알기쉽게 소개한다. 이 책은 글쓴이가 그동안 내놓은 <요가의 원리와 수행법>(법문사), <요가의 복음>(가치), <요가의 신비>(백산)의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주요 부분만 가려 뽑아 새롭게 엮은 것이다. 값 1만5천원.



▲작은 붓디의 큰 이야기(무도양애 지음, 박은혜·손성애 옮김, 모색)= 도서출판 모색의 예오 명상전집 8번째 권. 예오가 제자인 동소리는 한 구도자에게 보낸 편지만으로 구성된 책. 오직 한 명의 제자를 위해 '우주적 차원의 깨달음'이라는 문제를 살피면서 해탈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또한 인류의 미래에 대한 글쓴이의 독특한 예언이 곁들여져 있어 이채롭다. 값 1만원.



▲달링이 아니어서(이현정 지음, 우석)= 화가에서 불교방송 아나운서로 변신한 달링 씨의 수필집. 그림같이 인생의 전부를 생각하던 한 여대생이 결혼으로 인해 사랑하던 그림을 잃고 세상이 검은색뿐이라는 허무감으로 살아가던 중, 불교방송 아나운서 모집 광고를 보고 도전, 아나운서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 이 책에는 우리가 하는 말이란 무엇이고, 어떤 힘이 있는지, 글쓴이가 직접 방송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깨달음에 대한 메시지도 들어 있다. 값 7천원.



▲우학 스님 신행상담(우학 스님 지음, 좋은인연)= 불자로서 행해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한 신행 지침서. 문답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은,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늘 공경했을 법한 불교에 대한 의문을 풀어준다. 기도, 천도제, 수행, 불·보살, 경전, 불교용어 등 크게 8부문으로 구성된 이 책은, 가벼운 상담부터 전문적인 상담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값 7천원



▲여유(정관스님 지음, 명상)= 대구 선재불교대학 학장으로 있는 정관 스님의 수필집. 오랜 세월 수행자로 살아온 스님이 다양한 분야에서 '세상 엿보기'를 시도한다. 청소년·가정 문제에서 노사문제, 그리고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수행과 전법의 길에서 부딪히는 세속의 관심거리들에 대한 생각을 소박하고 정갈한 문체에 담았다. 지난 91년부터 충청일보 '무심천' 코너에 연재했던 글들을 새로 엮었다. 값 7천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역시어린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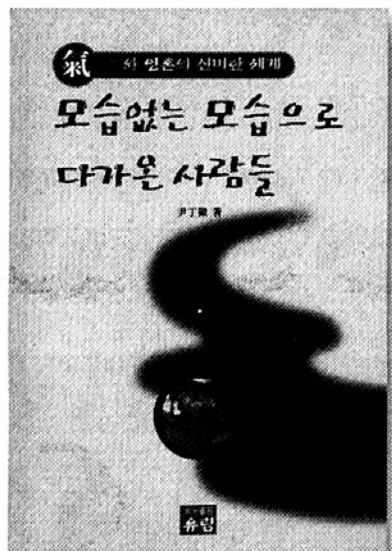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마음 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 화	법공양
2	선, 신비주의인가 철학인가	변 상 섭	컬처라인
3	선방일기	지 허	역시아문
4	아미타불 수행법	청 화	솔과학
5	산사에서 부처는 마음의 편지	명 정	좋은날
6	전통사찰음식	적 문	우 리
7	나의 아들 달라이 라마	주 민 환	한 언
8	단박에 완회를 맺는 가르침	김 지 수	불 광
9	배째면 면담록	대제드기만	탐 구 사
10	법구경	지 현	민 족 사

도서 안내: (02)737-0695

氣(마음)와 영혼의 신비한 세계

* 본인들의 의식수준에 의해 개별적인 영·진도 능력 전수기 가능함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초월된 정신세계에 관한 아름다운 체험 이야기로 그에 뒤따른 아름다운 마음의 묘법을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다는 이치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밝혀놓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요술이 나오는 책입니다.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도서출판 유림 전화 : 02-736-7148, 723-3856

수행의 체험에서 나온 책이라야 매력 있는 법 "잘 썼습니다. 눈을 열어주는 길이 있어요"

-동도사 한주 호명 스님

참선에 대한 모든 오해와 혼란은 '선의 정신이론'이 없었기 때문이다!!

간화선의 교학적 근거(제1편 선의 정신이론)와 수행이론(제2편 수행론)을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요구를 수용한 시의적절한 내용 -조선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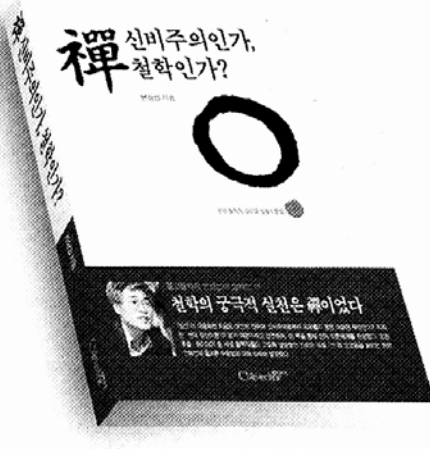
서양철학에 대해 학문적으로 강도높은 비판을 가한 예는 드물었다. -불교신문

불교의 필만 대장경을 근거로 '선'에 대한 정신이론을 확립 -동아일보 며칠 전에 변상섭이라는 사람의 책을 봤는데, 잘 썼습니다. 눈을 열어 주는 길이 있어요. -현대불교(문선교의 대화)중에서

서양철학이 개념의 이론화 작업에 그친 데 비해 선은 수행과 결부시켜 실천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한발짝 진전된 이론 -경향신문 '선'이 철학의 궁극적 실천이라고 강조 -대한매일

필만대장경으로 세운 선의 정신이론

禪 신비주의인가, 철학인가?



변상섭 지음 / 신국판 336면 / 값 12,000원